

# 신숙주의 생애와 학문

안병희

서울대 명예교수

## 1. 머리말

첫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는 누구나 느낀다. 역사 속의 인물은 처음 접하는, 그에 관한 글에 따라 평가가 좌우된다. 대개의 경우 그때 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만들어져 머리 속에 단단히 자리를 잡는다. 뒤에 계속하여 사귀거나 다른 글을 읽어 그 선입견을 버리고 정확히 평가하는 일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과 독서를 거쳐야 한다. 더욱이 정반대로 평가하여야 할 때에는 거기에 덧붙여 어떤 용단조차 소용된다. 주지육림(酒池肉林)이나 효빈(效顰)이란 고사 성어를 가르치느라 들쳐 본 사전류에서는 은나라 마지막 임금인 주(紂)는 포학무도한 군주의 전형이다. 그러나 갑골문(甲骨文) 재료로 해명된 그는 제왕으로 행할 의식을 착실히 치른 임금이라 한다. 갑골문 연구에 대한 신뢰가 있고, 사전류의 설명이 은나라를 멸한 주나라의 사료에만 따랐다는 인식이 있어야 선입견과 반대되는 평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10월의 문화 인물 신숙주(申叔舟)에 대하여도 비슷한 일을 필자는 체험하였다. 중학생 때에 읽은 이광수의 『단종애사(端宗哀史)』로 처음 알게 된 그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그를 총애한 세종의 원손(元孫, 뒤의 단종)에 대한 하

교와 절친한 성삼문(成三問)과의 의리를 가볍게 저버린 사람이었다. 오죽 하면 부인인 윤씨의 면전 매도와 사별을 당해야 할 정도의 사람이었을까 하는 느낌이었다. 뒤에 김동인의 『대수양(大首陽)』을 읽고, 또 한글의 창제와 한자음 정리에 대한 연구와 업적을 공부하면서, 그에 대한 선입견과 평가가 필자에게 매우 혼란스러웠던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다. 그러나 윤씨는 사육신 사건보다 반년이나 앞서 돌아갔고, 더욱이 그의 친정 오빠 윤자운(尹子雲)도 승지로서 세조 초년부터 충성을 다한 신하임을 확인하고는 『단종애사』로 생긴 선입견을 아무 미련없이 지울 수 있었다. 오히려 탁월한 재능과 학식, 그리고 매력적인 성품으로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로 평가하게 되었다. 이제 그러한 사실을 그의 문집인 『보한재집(保閑齋集)』(앞으로 인용할 경우에는 문집이라고만 한다)과<sup>1)</sup> 실록 기사, 그리고 관계 자료로써 설명하기로 한다.

## 2. 생애와 인간

신숙주는 자 범옹(泛翁), 본관 고령으로 1417년(태종 17) 6월 13일에 출생하였다. 호를 보한재(保閑齋) 또는 희현당(希賢堂)이라 하였다. 「연보」에서는 1437년(세종 19)에 비로소 이들 호를 썼다고 하였으나, 「연보(개찬)」에서는 희현당을 뒤에서도 설명되는 바와 같이 1445년 황찬(黃瓚)을 찾아갔을 때에 그가 지어준 것이라 하고 1468년(세조 14)에 호를 다시 보한재로 하였다고 한다. 희현당은 황찬이 지어준 것이 분명하나, 보한재는 누가 지어서

1) 여기에서 주로 참고한 『보한재집』은 1645년(인조 23) 영천에서 중간한 목판본이다. 1922년의 목활자본에서는 「연보」(권 12)만 이용하였다. 따라서 「연보」라 한 것은 목활자본의 것이다. 『보한재집』을 비롯하여 신숙주의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와 『북정록(北征錄)』을 성백효(成百曉) 씨 등이 국역하여 『보한재전서(保閑齋全書)』 3권 13책(고령신씨 문헌간행위원회, 1984)이 간행되었다. 문집 내용의 소개는 이 책을 많이 참고하였다. 이 책의 권 상(pp. 41-91)에는 신철우(申哲雨) 개찬의 「보한재 선생 연보」가 실려 있다. 밝히지는 않았으나, 위의 「연보」를 중심으로 하여 문집과 실록 기사를 보충한 것이다. 여기서는 필요할 경우에 「연보(개찬)」로 인용한다.

언제부터 썼는지 알 수 없다. 문집에는 북경의 회동관(會同館)에서 예겸(倪謙)에게 새로 지은 정자를 보한(保閑)이라 이름하였다면서 절구(絶句) 한두 편을 부탁하는 편지(권 16)가 실려 있다.<sup>2)</sup> 그가 마지막으로 중국에 사신으로 간 것이 1455년이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 그 호를 썼고, 또 본인과 후손은 문집 이름이 말하듯이 그것을 회현당보다 더 좋아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령 신씨는 원래 고령의 향리(鄉吏)였으나, 그의 7대조로 시조인 성용(成用)이 문과에 급제하여 일가를 이룬 뒤로 아버지 장(樺)에 이르는 선대가 모두 문과 출신인 집안이다. 어머니 나주 정(鄭)씨가 병조참판 유(有)의 따님으로 외가도 친가와 같이 좋은 집안이다. 공조참판을 지낸 아버지가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연보」에 따르면 모두 뛰어난 인물이어서 그들이 태어난 마을을 오룡동(五龍洞)으로 바꾸어 불렀다고 한다. 신숙주는 그 5형제의 셋째로서 형과 아우에게서 여러 가지로 보고 배우며 자랐으니 형제의 복도 타고난 것이다. 그러나 문집에서 아들 찬(潏)이 2품직에 올라 금대(金帶)를 띠었을 때에 읊은 시(권 10)를 보면, 스스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실록에 따르면 1433년에 아버지는 돌아갔다) 이미 사별한 형제도 있다고 한다. 막내 동생인 말주(末舟)가 75세까지 살았으나 다른 형제는 모두 그보다 앞서 돌아간 것이다. 부모와 형제의 복을 타고 났다고 할 것만은 아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어머니 정씨 집안이 대대로 살던 나주 북쪽 15리개의 마을이다. 「연보」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살던 집터에 초석이 남아 있고, 그가 그 아래에서 놀던 회화나무(어린이가 회화나무의 이슬을 맞으면 총명해진다고 한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고향은 남원이다. 아버지의 서첩(書帖) 뒤에 쓴 글(문집 보유편)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가 남원에서 성장하였는데, 그곳 보련법주(寶蓮法主)에게서 글씨를 배워 서화의 기초를 닦았고, 그곳 향교에서 공부하여 등과하고 서울에서 벼슬한 뒤에도 그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거기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1461년(세조 7) 4월에 신숙주가 우의정으

2) 보한재는 처남 윤자운의 호 낙한재(樂閑齋, 閑·閒은 같은 글자다)와 맥락이 닿는다. 결코 우연은 아니다. 같은 사람이 지었거나 서로 상의하여 지은 것으로 보인다.

로서 소분(掃墳)을 위하여 나주를 비롯하여 증조와 조부모의 무덤이 있는 옥과현(玉果縣), 증조모의 무덤이 있는 광주, 아버지의 고향 남원을 간 것(실록에 기사가 있고 그의 문집에 그때 지은 시들이 있다)은 가까운 선대의 고향이 전라도임을 말한다. 이와 같이 그는 훌륭한 집안에 태어났을 뿐 아니라 물산이 풍부한 전라도에서 성장하였다. 이러한 여건이 그의 성품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그는 7세에 집안 사이끼리 세교가 있던 대제학 윤회(尹淮)에게 수학하기 시작하였다. 윤회는 윤자운의 할아버지로 뒤에 그의 처조부가 되었다. 15세에는 아버지에게서 초사(楚辭)와 한유(韓愈)의 시를 배워 어릴 적부터 사부(詞賦)로 이름을 날렸는데 진사시(進士試)의 장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뒤에 일본과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문명(文名)을 날리는 바탕이 되었다. 1438년 세종이 선비가 훈고(訓誥)만 힘쓰는 경향을 지양하려고 처음으로 시행한 시부(詩賦) 진사시의 초시와 복시에 잇달아 장원을 하고 생원시에도 합격하였으며, 성균관에서 이른바 삼김(三金)의 한 사람으로 경학에 밝은 김반(金伴)에게 성리학을 배워 한글 창제의 협찬에 활용한 것이다.<sup>3)</sup> 이듬해에는 을과(乙科) 제3인으로 등과하였다. 당시에는 중국과 나란히 할 수 없다 하여 대과에 갑과(甲科)를 안 쓰고 을과라 하였으므로 후대의 갑과 제3인이다. 그리하여 초사(初仕)로 전농시(典農寺, 실록에 의하면 1460년 5월 26일에 사첨시(司膳寺)로 개칭되었다)의 종7품직인 직장(直長)이 되었다. 그때 이조에서 제집사(祭執事)로 차정하였으나 서리가 첩문(牒文)을 전하지 않아 나아가지 못하고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사실대로 밝히면 늙은 서리가 첩문을 전하지 않은 죄로 파면되어야 하지만, 그 늙음을 가없이 여겨 스스로 첩문을 맡고서도 나가지 않았다 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였다. 그의 너그러운

3) 김반은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문인이거나 서북 출신이어서 응분의 처우를 받지 못하였다(『필원잡기(筆苑雜記)』 권1 및 『송자대전(宋子大典)』 권 193, 「송정(松亭) 김 선생 묘표, 참조). 실록에 그가 불우하였을 때에 문인(門人)으로서 신숙주는 이석형(李石亨) 등과 함께 쌀과 술을 보냈다는 기사(단종 즉위년 12월 8일자)가 있다.

도량을 탄복하게 한 일화이다. 1441년 군직(軍職)으로 주자소(鑄字所) 별좌(別坐)가 될 때까지 경서와 사기를 읽는 것으로 지냈다고 한다. 영달에 연연하지 않고 실력을 길렀다니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해 가을에, 뒤에 재상이 될 때까지 근무한 집현전의 부수찬에 드디어 임명된다.

여기 ‘드디어’라고 한 것은 집에 책이 많지 않아 읽고 싶은 책도 읽지 못하는 일을 늘 안타까워하였으나 집현전의 장서각(藏書閣)에는 천하의 책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집현전에 등청하면 장서각에 가서 문을 닫고 단정히 앉아 경서, 사기와 백가서(百家書)를 두루 열람하였다. 간혹 동료의 직숙(直宿)을 대신하겠다고 자청하여 밤을 새워 책을 읽었는데, 하루는 내관으로 그것을 살펴보게 한 세종이 어의(御衣)를 내린 일도 있다고 한다.<sup>4)</sup> 문집의 일암(一菴) 선사에게 준 기(記, 권 14)에 따르면, 1442년 겨울에는 집현전의 동료 학사인 이석형(李石亨), 박팽년(朴彭年), 하위지(河緯地), 성삼문과 함께 사가독서(賜暇讀書)의 명을 받고 진관사에서 일본에 사신으로 갈 때까지 몇 달 동안 공부하기도 하였다. 유언에서 책을 함께 묻으라고 할 정도로 책을 좋아하여 높은 관직에 있을 적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장서각과 진관사의 집중적인 독서와 뒤에도 계속된 독서로 학식은 더욱 넓고 깊어져서 그의 학자로서의 업적과 정치가로서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신숙주의 학식은 책으로만 얻은 것이 아니다. 일본과 중국을 드나들어 다른 나라의 문물에 직접 접하여 가지게 된 지식도 적지 않다. 요즘 말로 국제적인 감각과 견문까지 갖추게 된 것이다. 1443년 봄에 일본 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간 것을 비롯하여 1445년에는 몇 차례 중국 요동을 다녀왔다. 그 뒤로도 1452년(문종 2) 가을 사은사(謝恩使) 수양대군(뒤의 세조)의 서

---

4) 사육신의 국청(鞠廳)에서 성삼문이 신숙주에게 “너는 집현전 달밤에 세종께서 원손을 안으신 채 하신 하교를 잊었느냐?” 하고 다그쳤다는 전승이 조정에도 알려져 있었던 점(『영조실록』 26년(1730) 9월 8일자 기사 참조)으로 보면, 이때의 장서각 독서는 성삼문과 함께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관으로, 1455년(세조 1) 가을에는 스스로 주문사(奏聞使)로서 중국 북경을 가게 되었다. 귀국하여 병조판서 등 다른 관직에 있으면서도 예조의 일을 맡아보게 되어 중국이나 대마도, 유구(琉球)에서 온 사신들과 사귀면서 국내에서도 외국의 문물에 접할 기회를 가졌다. 여진족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1458년에 황해·평안 양도 도체찰사(都體察使), 1459년에 함길도 도체찰사, 1460년에 함길·강원 양도 도체찰사로 임명되어 무공을 세웠는데, 그러는 사이에 여진족에 대한 지식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외국 여행과 외국 사신과의 접촉, 여진족 정벌에서 얻은 이웃 나라와 다른 민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재상이 된 뒤에도 10여 년 동안 겸예조판서로서 나라의 외교 문제를 능란하게 처리하게 하였다.

타고난 재능과 뛰어난 학식을 가진 그는 몇 차례의 외국 여행과 도체찰사로서의 지방 순행을 제외하면 언제나 주요한 경직(京職)에 있었다. 위에 말한 사은사 수양대군의 서장관으로 다녀오면서 수양대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데,<sup>5)</sup> 1453년(단종 1) 겨울에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수양대군이 국권을 장악한 뒤로는 글자 그대로 승승장구의 기세로 승진을 거듭하였다. 세조가 즉위한 뒤에는 그를 문신이면서도 지장(智將)이라 하여 당나라 태종을 보필한 위징(魏徵)이라 하고 사관에게 기록하도록 한 사실(3년 3월 15일자)로써 그 신임을 알게 한다. 주요한 관직만 보더라도 1454년 봄에 도승지, 1455년(세조 1) 가을에 예문관대제학, 1456년 봄에 병조판서, 1457년 가을에 집현전대제학, 1458년 가을에 우의정, 1459년 겨울에 좌의정, 1462년 여름과 1471년(성종 2) 겨울에 두 차례 영의정에 임명되고, 1468년에 세조의 유명으로 원상(院相)으로 된 일 등이다. 그 사이에 1453년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정난공신, 1455년 세조 즉위의 공로로 좌익(佐翼)공신, 1468년 남이(南怡)의 변난을 평정한 공

5) 서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수양대군 자신이다. 실록(단종 즉위년(1452) 8월 10일)에 따르면, 집앞을 지나가는 신숙주를 집으로 불러들여 술을 마시면서 마음을 떠보고 중국으로 가자고 하였다고 한다. 수양대군의 적극적인 포섭에 그가 응한 셈이다. 그리하여 북경을 동행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도왔으므로, 수양대군이 손수 쓰기를 “만리를 동행하며 사직에 죽기를 맹세하노라(同行萬里 誓死社稷)”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로로 익대(翊戴)공신, 성종의 즉위와 정국 안정의 공로로 1471년 좌리(佐理)공신에 책훈되고 1458년에 고령부원군으로 책봉된 것은 나라의 어려운 고비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에 1450년 가을의 권람 방(權擘榜)을 비롯하여 1469년(예종 1) 봄의 채수 방(蔡壽榜)까지 거의 해마다 문과의 시관(試官)으로 참여하여 많은 인재를 선발하여 요직에서 활동하도록 하였다. 요컨대 문종의 서거로 야기된 혼란기에서 세조를 가까이에서 보필하여 운명할 때까지 거의 20년에 이르는 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이다.

그가 남긴 업적은 세조의 말대로 문무를 겸비한 능력으로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저술이나 학문과 관련된 것은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외교와 국방에 관한 업적만 보기로 한다. 외국에 관한 풍부한 지식으로 이른바 사대교린을 스스로의 임무로 삼아 큰 수완을 발휘하였다. 일본 사행의 서장관으로 갔다가 오는 길에 대마도에 들러 세송선(歲送船)의 액수를 약정한 것이 최초의 외교적 성과이다. 처음에 대마도 도주가 휘하의 농간에 빠져 액수의 약정을 꺼렸으나, 그가 약정이 되면 권한이 오로지 도주에게 돌아가고 우리나라와의 우호 관계도 수립되는 것이라고 설득하여 마침내 배의 액수를 약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1455년 가을에는 주문사로 중국에 가서 고명(誥命)을 받아내어 세조 즉위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을 획득하였다. 1456년 봄에 중국에서 귀국하자 병조판서가 되었는데 일본을 상대하는 일의 중요함을 아뢰어 이때부터 예조의 일을 오로지 관장하게 되었다. 외교 문서는 거의 그의 윤문을 거쳐 보낸 것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외교 문제를 훌륭히 처리하였던 것이다. 국방에 관하여는 북방 여진족의 분란과 침입을 평정한 업적이 유명하다. 1458년에서 1460년 사이에 잇따라 북방 지역의 도체찰사로 임명된 일이 그것인데, 특히 1460년의 도체찰사로 나가서는 두만강 밖의 여진족 소굴을 소탕하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무(鎭撫)하고 개선하였다. 이에 북방 변경이 편안하게 된 것이다. 자세한 사실은 그가 찬술한 『북정록』에 나타나 있다.

관직에 못지 않게 그는 인격적으로 뛰어난 매력도 갖추고 있었다. 젊었을

적부터 정승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사람을 대함에는 항상 관용과 성실을 다하였다. 위에 소개한 제집사의 첩문 사건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관직에 나간 처지에 늙은 서리를 위하여 스스로 그러한 희생을 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일본 서장관으로 갔다가 왜구에 사로잡혔던 임신한 여인을 비단으로 사서 데리고 귀국하였을 때에 배가 큰 풍란을 만나자 주위에서 그 여인 때문이라 하여 바다에 던지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일 수는 없다고 하여 제지하였다. 그러자 바람이 곧 멈추어져 무사히 귀국하였다. 그의 지극한 정성에 귀신이 감동한 것으로 일행이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 또한 20대 후반의 일이다. 젊었을 적부터 이와 같이 미천한 사람도 은의와 정성으로 상대하였으므로, 친척이나 동료에 대한 일은 미루어 알 수 있다. 1456년 여름에 이른바 사육신(死六臣)의 옥사가 일어나 수백 명이 연좌되어, 무덤고 비조차 내리는 날씨로 병에 걸린 이가 많았다. 그때 옥사를 다스리던 그의 관대한 처리로 풀려나거나 가벼운 벌을 받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세조의 의심을 받았으나 지성으로 간청하여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1475년 6월 21일에 그가 59세를 일기로 돌아가자 실록의 졸기(卒記)에는 듣고 애석해 하지 않는 이가 없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하니 그의 인간성을 짐작하게 한다.

졸기에 이은 사평(史評)에서는 일찍이 중한 명망이 있어 세종이 문종에게 신숙주는 국사를 부탁할 만한 자이라고 하였고, 세조를 만나 계책이 행해지고 말은 받아들여져서 세조가 나의 위정이라 하여 매우 큰 일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보았고, 즉위함에 이르러서는 보필하고 찬도하는 공이 많았다고 한 것은 관직으로 확인된 그의 생애를 정확하게 요약한 것이다. 그러나 계속하여 세조를 섬김에는 지근의 위치에 있으면서 승순(承順)만을 힘쓰고 예종 때에는 형정(刑政)이 공정을 잃었는데도 원상이면서 광구하지 않음이 그의 결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사평의 옳고 그름을 필자의 짧은 역사 지식으로 헤아릴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세조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불경 언해의 편찬과 간행으로써 본다면 필자는 사평에 따르지 못한다. 실록 기사에 나타나는 정인지(鄭麟趾)와 같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승순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를 비롯한 불경 언해에 있는 간경도감(刊經都監) 관원의 제명(題名)에 그의 이름을 볼 수 없음이 그 단적인 증거다. 말하자면 세조의 뜻에 소극적으로 반대한 셈이다.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고 불교의 의식을 쓰지 말며 서적을 순장하라고 한 유언도 불경 언해에 대한 그의 태도와 맥을 같이 한다. 사실 『성종실록』의 사평은 삼사(三司)에 진출하여 훈구 대신을 공격하던 사림(士林) 계통의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신숙주 등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였고 40년 동안 관직에 있었으나 한 번도 대간의 탄핵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최항(崔恒)의 1474년 4월 28일자 졸기를 보면 누구나 그것을 알 것이다. 최항의 결점으로 무사안일과 우유부단의 관직 생활, 정승이 된 뒤에도 관례를 무시하고 대제학을 겸한 일, 부인 서씨의 마음대로 처리된 가정 문제, 인품이 아니라 재산으로 결정한 자녀의 혼사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인신 공격에 가까운 최항의 사평과 대조하여 신숙주의 단점이라 한 사평은 그의 인품과 관직 생활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역설적으로 말한다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시호 문충(文忠)에 걸맞은 생애를 살았고 그에 걸맞은 인품을 지녔다고 생각된다.

### 3. 학문과 업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숙주는 정치가로서 특히 세조, 예종, 성종 초에 이르는 기간에 큰 공적을 세웠지만, 그에 못지않게 학자로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세종의 훈민정음 곧 한글 창제에 대표적인 협찬자로서 『훈민정음(해례본)』을 편찬하고 거의 동시에 착수된 것으로 보이는 『동국정운(東國正韻)』과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의 편찬에 중심 인물로 참여하고, 스스로 『사성편고(四聲便攷)』를 편찬하여 『홍무정운역훈』의 앞에 수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언어 정책과 관련된 업적 이외에 세조 이후로 별세할 때까지 스스로 편찬한 서적이 있는가 하면, 나라에서 서적을 편찬하는 데 거의 다 참여하였다. 『직해동자습(直解童子習)』, 『예기(禮記)』, 『어제무경(御製武經)』의 번역

과 구결, 실록과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국조보감(國朝寶鑑)』, 『동국통감(東國通鑑)』 등 역사, 『오례의(五禮儀)』, 『경국대전(經國大典)』 등 의례와 법전, 『북정록』, 『병장설(兵將說)』, 『해동제국기(海東諸國紀)』 등 군사 및 외교에 관한 서적의 편찬 등이다. 사후에 한 아들이 편찬하여 성종이 간행하도록 한 문집 『보한재집』(17권)은 문필가로서의 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주지만, 학자로서의 그의 성실성과 박학을 보이는 글도 없지 않다. 여러 분야에 걸쳐 해박한 식견을 가진 학자가 아니고서는 하지 못할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는 국어와 관계 있는 업적에 국한하여 설명하기로 하지만, 되도록 이 잡지의 다른 글과 중복을 피하도록 하였다.<sup>6)</sup>

그러한 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례본의 편찬이다. 정인지의 「훈민정음해례서」에 의하면, 그 편찬에는 정인지를 비롯하여 최항, 박팽년(朴彭年),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姜希顔), 이개(李塏), 이선로(李善老)<sup>7)</sup> 등 이른바 언문팔유(諺文八儒)가 참여하였다. 이들은 정인지를 제외하면 모두 세종의 촉망을 한 몸에 받은 2, 30 대의 집현전 소장학자들이다. 1442년 겨울에는 진관사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의 은전을 입었고, 세종의 온천 행행(行幸)에

6) 원고 청탁서에 의하면, 신숙주와 훈민정음, 운서 등에 대하여는 따로 집필 의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례본이나 『동국정운』 등 운서의 구체적인 설명은 그 글들에서 다루어지리라 믿는다. 다만, 『홍무정운역훈』의 서명이 학계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인다. 보통 훈(訓)은 석(釋)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 한문을 중국어 발음으로 읽느냐, 국어 한자음으로 읽느냐의 뜻으로 쓰인 한훈(漢訓) 또는 향훈(鄉訓)이라 할 경우는 한자의 읽기를 가리킨다. 이는 실록에서 1450년 1월 중국 사신이 가지고 온 조서를 향훈으로만 읽을 것이냐, 한훈으로도 읽는다면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사(세종 32년 1월 29일자)로써 확인한다. 「동자습서(童子習書)」와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의 한훈도 같은 용례이다. 따라서 역훈은 『홍무정운』에 수록된 한자의 중국어 발음인 한훈을 한글로 음역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주석하였다는 뜻이다.

7) 성삼문의 문집에 실린 이현로 부교리의 이름에 대한 글(『성근보선생집(成謹甫先生集)』, 권 2)에 의하면 세종이 이름의 선(善)을 현(賢)으로 고쳤다고 한다. 실록에 처음으로 현로라고 나오는 기사(세종 29년 2월 16일자)로 보아 1446년 말에서 이듬해 2월 초 사이에 개명이 있었다고 하겠다.

는 편복(便服)으로 어가 앞에서 자문에 응하여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겼다고도 한다. 그리하여 이들 대부분은 세종이 추진한 운서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도 신숙주와 성삼문이 언제나 핵심의 자리에 있었다. 세종이 중국의 학자와 사신에게 음운을 질문하도록 한 학자가 항상 그 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굳이 따진다면 신숙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역훈』의 서문을 그가 쓴 사실로 알 수 있다. 그 두 서문은 「사성통고법례」와<sup>8)</sup> 함께 현재에도 전하고 있다. 그의 운학에 관한 학식을 알려 주는 업적으로, 국어학사의 큰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세종이 신숙주와 성삼문이 요동에 귀양온 황찬(黃贊)에게 음운을 묻도록 한 일은 너무나 유명하다. 한때는 한글 창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학자에게도 자문한 일로 설명된 적이 있었으나, 시기적으로 창제 이후인 1445년 봄인 데다가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창제에 계속된 사업인 『동국정운』 등 운서의 편찬과 관련된 것으로 바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왕래의 횟수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 횟수는 이미 당시의 기록에서도 혼선을 보이고 있다. 신숙주의 「행장」과 「묘지」에는 1445년 봄에 시작하여 13회나 요동을 왕래하였다고 한다. 질문을 시작한 시기는 신숙주와 성삼문에게 통사인 손수산(孫壽山)을 팔려서 요동에 보내 운서를 질문하게 하였다고 한 실록의 기사(세종 27년 1월 7일자)로써 확인되고 있다.<sup>9)</sup> 그러나 13회란 왕래의 숫자가 15, 6세기에 활

8) 이 법례는 최세진(崔世珍)의 『사성통해(四聲通解)』에 실려 전한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내용은 최세진이 「사성통해서」에서 말한 『사성통고』가 아니라, 『홍무정운역훈』을 읽는 데 (그 서문에서 신숙주가 말한) 「지남(指南)」이 된다. 원래 「법례」나 「역훈법례」라는 이름으로 『홍무정운역훈』, 따라서 『사성통고』 앞에 있었는데, 최세진이 옮겨 실으면서 이름을 「사성통고법례」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문외한의 생각이지만 관계 전문가의 일고를 기대한다.

9) 「연보」에는 1445년에 황찬이 「회현당서」를 지어 주었다고 하고서, 1446년에 음운을 질문하러 요동으로 13회의 왕환(往還)이 있었다고 한다. 실록의 기사나 문집의 시를 검토하더라도 1446년 이후로 두 사람이 동행한 요동의 왕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약한 조신(曹伸)의 『소문쇄록(謏聞鎖錄)』을 인용한 『통문관지(通文館志)』(속부분, 권 8)에서는 요동으로 1년에 3회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0)</sup> 신숙주 자신은 1455년(단종 3) 2월에 쓴 「홍무정운역훈서」에서 요동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중국의 선생과 학사에게 묻기 위한 왕래가 7, 8회에 이르고 물어본 사람도 약간 명이라고 기록하였다. 언뜻 보면 서로 어긋나는 이 기록들은 나름대로 일정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요동으로 황찬을 만나러 왕래한 횟수는 1년 3회뿐이고, 요동의 객관(客館)에서 황찬의 숙소를 왕래한 횟수는 13회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숙주에게 희현당이란 당호를 지어주고 1445년 4월 8일에 쓴 「희현당시 서」(문집, 보유)에서 황찬이 그가 처음(그 해 봄의 일이다) 요동에 와서 귀국하였다가 다시 온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처음 숙주가 배우기 위하여 내게 와 있을 때 그의 용모가 극히 단아하고 언동이 다 구차하지 않았으므로 내 생각에 그가 반드시 원위(源委)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였는데, 며칠 지나서는 또 숙주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얼마 후 돌아갔다가 한 달 남짓 되어 다시 왔는데, 서로 주고받은 것이 간격이 없어서 그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 수 있어 이에 착한 선비로 지목하게 되었다. 그 뒤에 돌아가려 하면서 당액(堂額)을 부탁하기에 드디어 ‘희현’으로 명명하였다.

이 글을 보면, 다녀간 달포만에 다시 왔다가 며칠 머물고서 4월 10일 전후하여 요동을 떠났고, 요동에 있는 동안 황찬을 적어도 두어 차례 방문한 것이 드러나 있다. 서울에서 요동까지의 일정(日程)이 얼마라고 정확히 밝힌 기록은 없다. 그런데 『고사촬요(攷事撮要)』(권 하, 48b)에 의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의주(義州)는 13일이 소요된다고 하고, 『통문관지』의 「중원 진공노정(中原進貢路程)」(속부분, 권 3, 34a-35b)에 의하면 의주를 기준으로 북경이

10) 『대동야승(大東野乘)』에 수록된 『소문쇄록』에는 이 기록이 실려 있지 않다. 전승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모두 2,049리로 28일이 걸린다고 하므로 420리인 요동은 6일이면 여유가 있는 일정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요동은 20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다.<sup>11)</sup>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황찬이 신숙주가 떠난 지 달포만에 다시 왔다고 한 것은 서울까지 갔다가 온 사실을 말한다.<sup>12)</sup> 이 왕래에서는 성삼문과 주고받은 시가 문집에 여러 편 실렸는데, 그 중의 한 편(권 11)에 “한 봄에 두 차례나 요동 나그네 되고 보니(一春兩作遼陽客)” 하고 읊은 구절이 있는 것은 황찬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일이다. 두 사람의 세 번째 요동 방문은 장마와 한더위를 피하여 가을에 하였으나, 이때는 황찬을 만나지 못하고 허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심양(瀋陽) 근처의 개원위(開原衛)에 갔다고 듣고서 요동로안찰사(遼東路按察使)의 아들 왕새(王璽)에게 편지를 맡기면서 쓴 다음 시(권 4)에 스승 없는 빈집의 쓸쓸한 가을 정경이 나타나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먼지에 묻힌 강탑(講榻) 닦는 이 없고/ 이슬 쌓인 뜰에는 풀만 절로 가을이네/  
요양성(遼陽城) 북녘을 바라보노라니/ 멈춘 구름 지는 해에 생각만 유유하네.

- 11) 예겸의 「조선기사(朝鮮記事)」, 『기록회편(紀錄彙編)』 제65)에 의하면, 1450년 1월 10일 요동을 출발하여 윤1월 1일 모화관(慕華館)에 도착하였다(이는 홍기문(洪起文), 『정음발달사(正音發達史)』(1946, 권 하, pp. 206-8)에 인용된 기록에 의한다). 꼭 21일만에 서울에 도착한 것이다. 그리고 이수(里數)는 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 53)의 의주목(義州牧)의 설명에서는 서울에서 1,186리, 『소문쇄록』에서는 서울과 북경 사이가 3,245리인데 서울 성문에서 의주까지는 1,140리요 의주에서 요동까지는 550리라 한다. 대개 비슷하나 요동까지의 이수에서 크게 다른 것은, 의주를 지나서는 가는 길에 따라 이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개략으로 하루 80리 정도를 간다면, 서울에서 의주는 13일정이지거나 14일정이 되어 『고사촬요』의 일정이 크게 틀렸다고 할 수 없겠다. 예겸의 기록이나 이수로 보아서 서울에서 요동은 20일 정도의 일정이다.
- 12) 이 사실을 홍기문의 앞 책(p. 203)에서 일정을 계산하여 국경에서 왕명을 받고 되돌아선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일정을 계산하여도 서울을 왕복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홍기문이 그곳에서 가을에 있는 왕래가 북경까지라 한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곧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왕래 또한 요동까지라고 생각한다.

이 시만으로는 가을에 갔을 때 처음부터 황찬이 다른 곳으로 간 것인지 몇 차례 만난 뒤에 피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강탐의 먼지를 닦는 이가 없다고 한 것으로는 처음부터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성삼문이 신숙주에게 보인 시(권 11)에도 “봄에 벌써 두 번이나 이곳(의주)을 들렀는데, 가을엔 세 번째 나그네라오(青春過此已云再 第三行色知在秋).” 하고 읊은 구절이 있어 1년에 세 번째 의주를 들러 요동에 간 것을 말하고 있다. 이보다 40여 년이 지난 1489년의 실록에는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사(성종 20년 5월 27일자)가 있다. 곧 공조정랑 권주(權柱)가 성종에게 아뢰기를 한어의 질정관으로 요동에 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요동의 질정관은 신숙주가 황찬을 만난 것으로 비롯되었는데 신숙주가 자주 가니까 황찬이 남의 신하로 죄를 지어 귀양온 처지에 어찌 감히 외국 사람과 접촉하느냐 하며 만나 주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질정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왕에게 아뢰는 말인 데다가, 세세한 내용으로 미루어 신빙할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sup>13)</sup> 그러므로 위의 시는 황찬이 피하고 만나주지 않았을 때(겉으로는 죄인의 몸으로 외국의 학자를 접촉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실지로는 신숙주와 성삼문의 거듭되고 까다로운 질문이 어려워 피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에 간접으로 편지만 전하고 읊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요동으로 왕래한 것은 세 번(성삼문과 주고받은 많은 시에서 요동을 네 번, 다섯 번 갔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다)이지만, 여러 번, 곧 10여 회 만나 배운 것은 봄과 초여름의 두 번이라고 생각된다. 한 번 갔을 때마다 당연히 여러 차례 만나게 되어 13회의 왕래였다면 5, 60회나 만나 배웠을 것이므로 뒤의 예검과 같은 중국 사신에게 더 물어볼 내용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홍무정운역훈서」의 7, 8회의 중국 왕래는 요동의 이 3회와 4,

13) 요동의 질정관이 신숙주로 비롯되었다고 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미 1434년(세종 16) 2월에 이변(李邊)과 김하(金何)가 『직해소학(直解小學)』의 한어를 질정하러 요동을 다녀온 전례가 있었다. 50여 년 전의 일이라 잘 몰랐을 수 있겠다. 그러나 황찬에 관한 일은 시기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귀양왔다는 이야기로 미루어 조리와 근거가 있다고 생각된다.

5회의 개별적인 북경 방문이 된다. 기록으로 확인된 것만 보아도, 신숙주의 서문 집필 전 방문은 그의 생애에서 말한 1452년 사은사 서장관으로서의 일이고, 성삼문은 아버지 성승(成勝)이 1447년 성절사(聖節使)와 1450년(문종 즉위년) 10월 정조부사(正朝副使)로 갔을 때에 수행한 일이다. 특히 성삼문의 1450년 방문에는 신숙주가 음운을 질문할 사목(事目)을 왕에게 아뢴 실록의 기사(문종 즉위년 10월 10일자)가 있다. 그밖에 이들이나 다른 사람의 한 두 차례 북경 방문이 있었다면 7, 8회가 된다. 그러므로 겹으로 어긋나는 이들 세 기록의 방문 횟수도 어느 하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횟수 계산의 근거가 다른 데 말미암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으로 황찬에게 음운을 질문하기 위하여 요동을 왕복한 횟수는 1445년의 3회이고, 객관에서 황찬의 숙소 왕래는 모두 10여 회가 되는 셈이다. 신숙주가 말한 7, 8회의 중국 왕래는 요동의 3회와 북경의 4, 5회를 합친 계산이다. 그러나 우리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의 정리와 음역을 위한 중국의 학자에게 질문한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1450년 윤1월에 사신으로 온 예겸에게도 신숙주와 성삼문이 왕명으로 질문하였다. 실록(세종 32년 윤1월 3일자)에 정인지를 따라 이들이 사신을 만나 『홍무정운』을 가지고 강론하였다고 한다. 이때도 손수산은 통사로 참여하였다.<sup>14)</sup> 그런데 예겸의 기록에는 갑인일(甲寅日) 곧 윤1월 9일부터 매일 식후에 신숙주가 책상에 책을 얹어 놓고 제기한 음운의 의심을 강교(講校)하였다고 한다.<sup>15)</sup> 20일 서울을 떠날 때까지 공식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배운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기사』와 문집에 의하면 두 사람은 의주까지 배운 것으로 보이면 약간의 문제(위의 문종 즉위년 10월 10일자 실록 기사 참조)가 남았겠지만

14) 손수산은 실록에 1464년까지 통사로 활약한 기사가 있다. 그러나 단순한 통사는 아니다. 신숙주 등과 함께 『홍무정운역훈』의 편찬과 뒤에 말할 중국어 역학서인 『직해동지습』의 번역에 참여하였다. 역관이지만 중국의 운서에 아주 정통한 사람으로 생각된다.

15) 이 부분은 홍기문의 앞 책(pp. 206-8)의 인용에 의한다.

큰 의문은 거의 해결된 것이다.

이와 같이 신숙주는 성삼문과 함께 황찬과 예겸에게 음운을 배웠으나, 해례본과 운서의 편찬에 진작부터 참여하였으므로 이미 운서와 중국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성삼문의 경우, 요동의 왕래에서 신숙주에게 준 시(권 11)에 “십년의 한학 공부 어디에 쓰려나/ 이제야 겨우 두세 마디 얻은 것을” 하는 구절이 있다. 성과는 보잘것없지만 10년 동안 중국어 공부를 하였다는 것이다. 신숙주의 중국어 공부는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 드러나 있지 않다. 그의 줄기에서 한어 곧 중국어에 능통하였다고 하고, 『행장』에서는 한어, 왜어, 몽고어, 여진어의 이른바 사학(四學)에 모두 능통하여 간혹 통사 없이도 스스로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황찬이나 예겸을 만날 때 통사를 데려간 사실에 비추어 좀 과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록에 문종이 신숙주는 한어를 모르나 음훈(音訓)에는 정통하다고 말한 기사(문종 1년 8월 5일자)가 더 정확하다고 하겠다.<sup>16)</sup> 요컨대 중국어에도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운서를 깊이 공부한 데다 황찬과 예겸에게 질정하여 음운과 자훈(字訓)에 대하여는 정통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운서의 편찬에 핵심 인물로 참여하여 서문을 쓰고, 또 스스로 『사성통고』를 편찬한 것이다.

신숙주와 성삼문 등은 『직해동지습』이란 중국어 학습서를 번역하였다. 아

16) 실록에 요동 백호(百戶)가 칙서와 요동도사(遼東都司)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을 때에 왕이 겸예조판서 신숙주에게 말을 전하게 했다는 기사(세조 13년 9월 15일자)가 있다. 이 기사를 강신항(姜信沆), 『한국의 역학(譯學)』(2000, p. 51)에서는 왕과 사신 사이에서 통역을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해석은 그 기사만 보면 가능해 보인다. 그런데 『세조실록』에는 이 밖에도 중국, 일본, 유구(琉球)의 사신을 접견할 때에 왕이 신숙주나 예조판서 박원형(朴元亨)에게 말을 전하게 했다는 기사가 또 있다. 그 말도 노숙한 통사라야 옮길 정도로 내용이 길고 복잡하다. 그러므로 왕이 사신과 직접 문답했다는 기사와 같이, 그들이 중국어 등으로 통역한 것이 아니라 역관을 시켜 왕의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한 것으로 이해함이 옳당하지 않을까 한다.

쉽게도 책이 전하지 않으나 성삼문의 「동자습서」(『동문선(東文選)』 권 94)로<sup>17)</sup>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세종과 문종이, 『직해동자습』에 성삼문을 비롯하여 신숙주, 조변안(曹變安), 김증(金曾), 손수산이 한글로써 중국음을 한자 아래에 쓰고 또 국어로 뜻을 풀이하게 하였는데, 화의군(和義君)과 계양군(桂陽君)은 이를 감독하고 김하와 이변은 이 일에서 의심된 것을 밝히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에 이 책의 음의(音義)가 환하게 되어 배우는 이가 한글 몇 자만 알면 이 『직해동자습(언해)』을 열흘 사이에 익히어 중국어와 운학에 통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sup>18)</sup> 이로써 이 학습서가 후대의 『노걸대(老乞大)』, 『박통사(朴通事)』의 언해서와 비슷한 체재인 사실을 알겠다.<sup>19)</sup> 「행장」에서 신숙주가 손수 여러 외국어를 번역하여 역관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밖에도 이 번역이

17) 이 서문이 『성근보선생집』(권 2)에는 「직해동자습서」라 되었으나 내용은 같다. 다만 자구의 작은 차이가 있고, 평화(評話) 곧 이야기를 백화문으로 번역하였다는 뜻인 ‘역훈평화(譯訓評話)’(이 어구를 서명 뒤에 붙이는 일이 있으나, 첫머리의 직해와 중복되므로 옳지 않다)를 성종 초의 책인 『훈세평화(訓世評話)』로 고친 잘못이 나타난다. 서문에 적힌 신숙주의 관직이 1453년(단종 1) 6월 8일에 전보된 우부승지이므로, 서문은 그때부터 우승지로 체직된 그해 10월 11일 사이에 되었고, 책도 그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훈세평화』는 이변이 편찬한 중국어 역학서로, 현재 1518년(중종 13) 12월 발문의 갑인자 복각본이 일본에 전한다. 그 서문에서 이변이 고전한문인 이야기를 백화문으로 번역한 일을 ‘역어번설(譯語翻說)’이라 한 것은 위의 ‘역훈평화’와 표현만 다르게 한 말로 생각된다.

18) 이 책과 현전하는 『동자습(구결)』의 관계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동자습(구결)』은 어린이에게 교훈이 될 이야기를 모아 주제별로 나누어 실었는데, 이야기를 읊은 사언시(四言詩)로 본문을 삼고 이야기를 산문으로 풀이한 내용인 『동자습』에 한글로 구결을 단 것이다. 서문과 서명에 비추어서 『직해동자습(언해)』은 고전한문인 『동자습』을 백화문으로 번역(누가 언제 하였는지는 모른다)한 『직해동자습』을 다시 언해한 것이라 생각된다.

19) 후대의 언해서와 같이 중국음의 정속(正俗) 두 표기가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전하는 『홍무정운역훈』에는 운목(韻目)에 따라서 속음이 하나 또는 둘(윙: 융·잉(권 6, 10a), ㄱ-ㅇ: 궁·경(권 6, 25b) 참조)이 표기되어 있다. 고본(稿本)도 그와 같았다면, 중국어의 속음 표기가 부분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후대의 역학서 언해의 표시일 뿐 아니라 일반 언해서로서도 매우 빠른 예인 점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신숙주가 왕명으로 1471년 혼자서 편찬한 『해동제국기』는 일본과 유구의 사정,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사신 왕래 등을 설명한 책으로서, 일찍부터 일본의 역사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서로 중시되어 왔다. 그러나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다. 곧 일본의 지명과 인명 147개를 표기한 한자로써 전통한자음의 실상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串’(訓羅串 96b)은 훈독(訓讀, 訓乃古時浦 107a 참조)되나 나머지 한자는 모두 음독(音讀)되는데, 그 독음이 동국정운식이 아니라 전통 한자음이다.<sup>20)</sup> 간혹 이두에 나타나는 독음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介·只·乃·而’가 일본의 고유 명사에 대응하여 ‘가·기·나·△’를 표기한다. 이 고유 명사 표기에서 특기할 일은 일본어의 탁음(濁音)이 앞 음절의 받침에 같은 계열의 비음(鼻音)으로 표기되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어의 ‘sago, nisidomari, kusubo’가 ‘雙古, 尼神都麻里, 仇愁音夫’로 표기된 따위다. 이러한 표기는 『첩해신어(捷解新語)』와 이 책 부록인 「어음번역(語音翻譯)」의 한글 표기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어 전사의 전통이 한자와 한글로 연면히 이어진 것을 말한다. 「어음번역」은 1501년(연산 7)에 추가된 「유구국(琉球國)」의 마지막 조항인데, 유구어를 한글로 전사한 자료다.<sup>21)</sup> 신숙주와 상관없이 편찬되었으나, 『해동제국기』가 있어서 이 자료가 있을 수 있었다는 점으로도 이 업적은 귀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 국어학과 관련된 업적에 『예기』와 『어정무경』의 구결이 있다. 후자는 책이 아예 전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전자도 16세기 중엽의 간본으로 추정되는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 난상의 구결이 그 책에서

20) 여기에서 행한 설명은 주로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 교수의 「언어자료로서의 『해동제국기』」, (일본. 다나카 다케오(田中健夫) 역주 『해동제국기』, 1991 소수)에 의한다. 사의를 표한다.

21) 『해동제국기』가 갑인자, 1행 17자로 되었으나, 부록은 을해자, 1행 19자로 되어 활자와 판식에서도 다르다. 「어음번역」의 한글 전사에는 ㅁ·△이 쓰이고 ㅈ이 글자대로 읽히며, 유구어의 액센트를 위한 방점 표기가 없는 것 등이 주목된다.

온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명의 제시로 그친다. 요컨대 그의 학문과 업적에서 주목할 것은 후대에 높은 평가를 받는 일이 모두 30대의 것이다. 『해동제국기』가 만년인 55세 때의 업적이나, 기본적인 자료는 20대 후반에 일본 통신사 서장관으로 일본에 갔을 때에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40대 이후로는 나라의 핵심되는 관직에 있었으므로 학문 활동을 할 형편이 아니었다. 2, 30대에 뛰어난 학식으로 불후의 국어학 업적인 『훈민정음(해례본)』, 『동국정운』, 『홍무정운역훈』의 편찬에 참여하고 『사성통고』를 스스로 편찬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알 수 없다.

#### 4. 맺음말

신숙주는 계유정난 이후로 절친한 친구 성삼문과의 상반된 처신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일찍부터의 일로 보인다. 집안에 전래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의 손자 이요정(二樂亭) 신용개(申用溉)는 일생 남보다 일찍 등청하고 늦게 퇴청하였다고 한다.<sup>22)</sup> 할아버지에 대한 구설을 미리 막자는 뜻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숙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공공연하게 행한 것은 명나라에 대한 충절과 대의명분을 큰 덕목으로 내세웠던 병자호란 이후의 일이다. 그때의 집권층은 성삼문을 명나라 충신 방효유(方孝孺)와 같은 사람으로 추켜세우고 관직과 시호를 추증하였다. 그리하여 숙주나물까지도 신숙주의 절조를 비웃는 말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에 신숙주의 후예인 신씨 집안에서는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숙주나물을 녹두나물로 부르도록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전통은 지금도 철저히 지켜진다고 한다. 과거에는 조상의 휘자(諱字)를 피하여 말을 바꾸거나(예컨대, ‘공기’의 후손이 밥공기를

22) 이는 후손인 서울대학교 독문학과와 동료 신태호(申泰浩) 교수에 의한다. 신 교수는 그 밖에도 집안의 이야기와 집안에서 편찬, 간행한 『고령신씨 문헌통고(高靈申氏文獻通考)』(상·하 2책, 1978)등 자료를 제공하여 이 글을 쓰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깊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삿갓 바라기로 부르는 따위) 체직(예컨대, ‘사헌’의 후손이 대사헌의 관직에 나가지 않는 따위)을 원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거의 없어졌거나 사라진 습관이다. 그러므로 지금껏 녹두나물로 바꾸어 부르는 일은 단순히 회자를 피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 숙주나물에는 신숙주에 대한 인격적인 모함이 함의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함의 때문에 성삼문의 후예인 성씨 집안에서는 그 나물을 아예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는 『단종애사』에서의 왜곡된 사실(史實)과 마찬가지로 전혀 근거가 없다.

성삼문의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신숙주의 시호에 쓰인 똑같은 글자를 순서만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신숙주의 시호로 봉상시(奉常寺)에서 처음 올린 삼망(三望)은 문성(文成), 성헌(成憲), 문열(文烈)로 충자가 없었다. 이를 본 이조판서 정효상(鄭孝常)이 문충으로 바꾸도록 하였다고 한다. 예종이 돌아가자 온 조정이 비통에 싸여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신숙주가 무엇보다 먼저 대통을 이을 상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도승지를 데리고 대왕대비를 뵈고 성종을 옹립하여 나라의 안정을 가져온 공적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실록에 의하면, 정효상의 이 조치는 거쳐만 갈 이조에서 의망(擬望)을 바꾸게 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어서 끈질긴 대간의 간쟁을 유발하였으나 정효상의 해명과 성종의 불문으로 수습되었다(성종 6년 9월 6일 및 11월 10-14일자 기사 참조). 그 결과로 신숙주와 성삼문은 행적의 무게 중심이 문과 충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공적으로 평가되었다. 앞에서 설명한 공적과 함께 신숙주가 왕의 후사를 재빨리 결정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공적도,<sup>23)</sup> 단종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진 성삼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충절임을

23) 신숙주의 시호에 쓰인 충자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이 초기에도 없지 않았다. 『성종실록』의 김양경(金良穰) 시호에 관한 기사 뒤의 사평에서 봉상시 관원이 의논한 시호가 적합하지 못한 약간의 사례를 든 중에 신숙주와 서거정(徐居正) 시호의 충자를 지적한 일(15년 9월 6일자)이 그러하다. 그러나 앞의 신숙주 줄기의 사평과 똑같이 이 사평이 결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국왕의 후사에 용행하는 일은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도 각오하여야 하기 때문에 충자를 시호에 써야 한다는 것이 당시 조정의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문종이 천수를 누렸다면 계유정난도 단종의 선위도 없었고, 이른바 사육신도 없었을 것이다. 성삼문도 신숙주와 손잡고 나라에 큰 공적을 남겼을 것임에 틀림없다. 반대로 신숙주마저 성삼문과 같은 길을 갔다고 생각하면, 국어학으로는 여간 불행이 아닐 것이다. 한글 창제에 관한 사료가 그의 문집이나 관계된 문헌에 그나마 남은 것은 그가 사육신의 반열에 들지 않은 데도 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성삼문과 다른 길을 간 것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어학에 남긴 그의 업적에 더하여, 세조의 수선(受禪) 전후에 취한 그의 선택을 국어학도로서는 오히려 고마워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명분이나 이상보다 냉혹한 현실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처신한 점으로 그는 탁월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 그리하여 뛰어난 생애와 업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남겨 놓았던 것이다.